

# 광주 FC '어게인 2014' ... 승격 드라마 시작된다



광주 FC가 28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과 K리그 2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단판 승부를 벌인다. 사진은 지난 2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주장 안영규가 패스를 하는 모습. (광주 FC 제공)

## 오늘 오후 7시 K리그2 준플레이오프전 대전 원정 경기

비겨도 탈락...무조건 이겨야 하는 '벼랑 끝 승부'

나상호 공백 아쉬움...정영충·김정환·김민규 등 출격 준비

결전의 날이 밝았다. 승격에 도전하는 광주 FC가 대전으로 가 무조건 이겨야 하는 벼랑 끝 승부를 벌인다. 광주 28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과 KEB 하나은행 K리그2 준플레이오프 원정 경기를 치른다. K리그2 우승팀 아산 무궁화의 승격 자격 박탈로 5위 광주는 극적으로 승격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험난한 가시밭길이 광주를 기다리고 있다. 승격으로 가는 첫 관문을 넘기 위해 광주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한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 연장전 없이 4위 대전의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다. 주어진 90분 안에 무조건 골을 넣고, 이겨야 하는 광주의 절박한 승부다. 여기에 광주에는 아쉬운 전력 손실도 있다. 2018시즌 16골을 몰아넣으면서 K리그2 득점왕에 오른 '국가대표' 나상호가 결정적인 순간 벤치를 지켜야 한다. 그는 안산과의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경고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이번 준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없다. 하지만 광주가 '믿는 구석'이 있다. 광주는 극적인 승격쇼를 펼치며 1군 무대에 복귀한 경험이 있다.

정규시즌 최종전 승리로 4위에 올라 준플레이오프에 나섰던 지난 2014년, 광주는 거침없는 질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3위 강원을 1-0으로 제압한 광주는 2위 안산을 3-0으로 꺾고 승강플레이오프 무대까지 올랐다. 그리고 K리그1 11위 경남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1-2차전 합계 4-2 승리를 거두면서 짜릿한 승격쇼에 마침표를 찍었다. 당시 승리의 기쁨으로 환호성을 질렀던 여름, 정준연, 제종현이 다시 한번 승격의 감격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군복무를 마치고 베테랑이 되어 돌아온 여름의 각오가 남다르다. 여름은 당시 경남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결정적인 골 기회를 놓쳤지만, 승격을 확정하는 김호남의 골을 도우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다. 나상호의 공백은 아쉽지만 정영충, 김정환, 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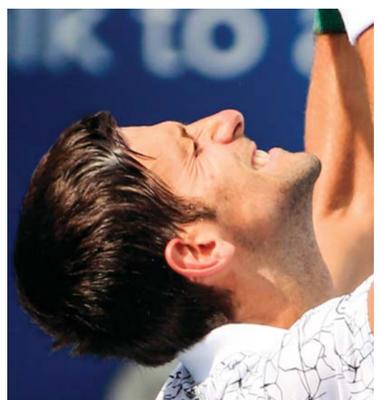
규, 임민혁, 두현석 등 빠르고 테크닉이 좋은 선수들이 전반의 준비를 끝내고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또 광주의 후반기 질주를 이끈 '외국인 듀오' 펠리페와 두아르테 역시 최고의 컨디션을 보인다. 광주는 2014년의 경험을 살려 '총공세'로 나선다. 당시 준플레이오프 상대였던 강원도 수비 전술을 펼쳤지만 광주는 후반 초반 적극적인 공세로 골을 넣으면서 주도권을 가져왔다. 단판 승부, 무조건 이겨야 하는 승부인 데다 상대도 만만치는 않다. 황인범이라는 결출한 에이스를 보유한 대전이 안방에서 광주를 기다린다. 올 시즌 전적에서도 광주가 1승1무2패로 열세였다. 하지만 광주는 대전 원정에서 1승1무를 거뒀고,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 왔다. 어렵게 기회를 잡은 광주가 대전전 승리로 다시 한번 기적의 겨울을 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기성용 클래스 인증

2경기 풀타임...뉴캐슬 3연승 지휘

잉글랜드 프로축구 뉴캐슬에서 활약하는 기성용이 2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면서 팀의 3연승을 견두지 못했다. 뉴캐슬은 27일 영국 버리의 터푸 무어에서 열린 2018-2019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버리와 원정에서 2-1로 이기면서 3연승을 기록했다. 기성용은 12라운드 본머스전(2-1 승)에 이어 이날 버리전에도 뉴캐슬의 중원 미드필더 역할을 맡아 2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다. 특히 교체로 나선 10라운드 사우샘프턴전(0-0 무)과 11라운드 왓퍼드전(1-0 승)을 포함해 기성용이 출전한 최근 4경기에서 뉴캐슬은 무패 행진(3승 1무)을 이어갔다. 개막 이후 10경기 연속 무승(3무 7패)의 늪에 빠졌던 뉴캐슬은 최근 4경기 연속 무패에 3연승을 따내면서 강등권에서 탈출해 13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뉴캐슬은 전반 4분 만에 상대의 자책골로 선제골을 맞았다. 페널티아크에서 시도한 페데리코 페르난데스의 슈팅이 상대 팀 선수의 발에 맞고 골문으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기성용이 오른쪽 측면에서 후방으로 내준 볼이 버리 진영으로 투입되면서 득점의 시초가 됐다. 행운의 선제골을 따낸 뉴캐슬은 전반 23분 코너킥 상황에서 키아론 클라크의 헤딩 결승골로 승리에 다가섰다. 뉴캐슬이 이어받은 기성용이 맷 리치에게 패스한 상황이 결국 결승골로 이어지면서 뉴캐슬이 전반 2골 모두 기성용의 발끝에서 시작된 셈이 됐다. 뉴캐슬은 전반 40분 버리의 샘 보크스에게 헤딩 추격골을 내줬지만 추가 실점을 막아내며 2-1 승리를 지켜냈다. /연합뉴스



## '황제' 조코비치

ATP 투어 연말 최고령 세계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2018시즌을 세계 랭킹 1위로 마치게 됐다. ATP 투어는 27일 "조코비치가 12월 말 순위까지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는 최고령 연말 세계 1위 기록"이라고 밝혔다. 올해 Wimbledon과 US오픈에서 우승한 조코비치는 1987년 5월생으로 31세 7개월의 나이로 세계 1위

를 지키게 됐다. 이 부문 종전 기록은 지난해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세운 31세 6개월이었다. 테니스는 최근 1년간 성적을 토대로 세계 랭킹을 정하기 때문에 연말 세계 1위는 곧 그해 가장 강한 선수라는 의미가 된다. 조코비치는 2011년에 처음으로 연말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이후 2012년과 2014년, 2015년에 이어 2018시즌도 '자신의 해'로 만들었다. 역대 최다 연말 세계 1위 기록은 피트 샘프러스(은퇴·미국)가 보유한 6회다. 조코비치와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 지미 코너스(은퇴·미국)가 나란히 5회로 공동 2위다. 나달은 네 차례 연말 1위를 차지했다. 2003년 앤디 로딕(은퇴·미국)을 마지막으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연말 세계 1위는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 앤디 머리(260위·영국) 등 '빅4' 선수들이 독점했다. 한편 이번 시즌은 조코비치와 나달, 페더러가 나란히 '톱3'을 형성한 가운데 한 해 끝나게 됐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 이들 세 명이 연말 '톱3'을 형성했고 2014년에 이어 올해 4년 만에 다시 이들 세 명의 시대가 재현됐다. 올해 4대 메이저는 호주오픈 페더러, 프랑스오픈 나달, Wimbledon과 US오픈 조코비치 등 이들 세 명의 차지했다. 특히 2018시즌은 조코비치와 나달, 페더러가 모두 세계 1위에 올랐던 첫 시즌이기도 하다. 한편 올해 호주오픈 4강까지 올랐던 정현(한국체대)은 세계 랭킹 25위로 마치게 됐다. /연합뉴스



## '꾸준' 미켈슨

골프 세계랭킹 25년간 50위권 유지

900만 달러(약 102억원)가 걸린 세기의 골프 대결에서 타이거 우즈를 꺾은 필 미켈슨이 또다른 금자탑을 쌓았다. 무려 25년 동안 세계랭킹 50위 밖으로 한 차례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미켈슨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된 남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27위를 차지했다.

이로서 미켈슨은 1993년 11월 28일 47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톱 50에 진입한 이후 25년째, 1천 305주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골프라 잘 치는 남자 선수 50명 안에 들게 됐다. 1992년 프로로 데뷔한 미켈슨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메이저 5승을 포함해 43승을 거뒀다. 화려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골프황제' 우즈에 밀려 단 한 번도 세계랭킹 1위에 오르지 않았고 '만년 2인자'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았다. 그러나 한때 랭킹 1천 위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던 우즈를 비롯한 여러 선수가 크고 작은 부진을 겪는 동안에도 미켈슨은 한결같이 정상급 기량을 유지했다.

1천305주 중 절반이 넘는 774주 동안 톱10을 지켰고, 우즈에 이어 랭킹 2위를 차지한 기간도 269주에 달한다. 48세의 미켈슨은 지난 1월 세계랭킹 49위까지 떨어지며 50위 밖으로 밀려날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연이어 톱 10에 들며 순위를 끌어올렸고 3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멕시코 챔피언십에서 4년 8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미켈슨은 지난 2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우즈와의 매치플레이 대결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즈를 꺾고 900만 달러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이 경기의 결과는 세계랭킹엔 반영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황희찬, 부상 훌훌~

베를린전 풀타임 출전

허벅지 통증으로 벤투호의 11월 호주 원정에 빠졌던 황희찬(함부르크)이 부상을 털어내고 풀타임 출전했다. 함부르크는 27일 독일 함부르크의 폴크스파르크 슈타디온에서 열린 유니온 베를린과의 2018-2019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2(2부리그) 14라운드에서 2-2로 비겼다. 지난 13라운드를 앞두고 허벅지 통증 때문에 잠시 전열에서 빠졌던 황희찬은 A매치 휴식기 동안 휴식을 취하고 나서 베를린전에 선발로 출격해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 전반 12분 만에 선제골을 내준 함부르크는 후반 13분 아론 훈트의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함부르크는 후반 20분 루이스 홀트비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경기를 뒤집었고, 황희찬은 후반 막판 상대 진영으로 쇄도해 득점을 노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황희찬의 득점이 실패로 돌아간 함부르크는 후반 45분 베를린의 솔레이만 압둘라히에게 동점포를 얻어맞아 다잡은 승리를 놓치고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